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전동보장구 배상 책임보험 지원 강화

정읍시가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 가입되는 배상책임보험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이동 편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을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사용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동보장구 보험 적용상당센터(☎ 02-2038-0828)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삼정푸드, 노후 도축시설 개선사업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도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으로 도축장의 위생 관리 강화와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꾀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30년까지 매년 도내 소규모 도축장 1개소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축 단계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도축장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역 내 도축장인 삼정푸드는 군산, 남원 등과의 경쟁 끝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삼정푸드는 계류장, 예방실, 작업실, 폐수처리시설 등 노후 시설 개선과 도축 장비 교체에 지원받아 운영 효율성과 위생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사랑상품권 특판 3월까지 연장

상품권 구매시 10%선 할인, 사용 후 10%추가 캐시백 · 통합 월 구매한도 70만원

전북 고창군이 민생경제회복프로젝트의 첫 실행안으로 고창사랑상품권 특판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300억원까지 상품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지역내 경기부양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당초 1월말까지였던 '고창사랑상품권 20%특별할인' 혜택을 오는 3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군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300억원 규모까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할인율은 지난 1월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을 제공하며, '고창사랑카드' 사용시 추가 10% 캐시백을 지원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통합 월 구매한도는 70만원, 지류형 상품권 월 최대 구매한도는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별할인은 2월 중전액부터 적용돼 4일부터 시행중이다. 2월 1~3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2월 중 '고창사랑카드'에 소급 적용되며, 해당 내역은 '고창사랑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지역 자금 유출을 방지하여 경제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큰 호응에 힘입어 특별할인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특별할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군과 군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도 30호선 석포~운호 구간 2차선 개량 사업 추진

부안군, 총 450억원 투입 진서면 석포~운호 5.87km 구간 도로시설 개량

부안군은 일반국도 30호선 석포~운호 5.87km 구간 도로시설 개량 사업을 총사업비 450억원(국비)을 투입해 오는 11월 사업에 착공해 오는 203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날 현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서면 운호 상습침수 지역 개선을 위해 교량 1개소(20m) 설치와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 차원에서 교차로 11개소, 회전회차 3개소, 평면교차로 8개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21년 11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고시 후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와 행정절차(공법심의·설계·경관심의 등) 이행 후 11월 사업에 착공해 오는 2030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임을 알렸다.

특히 현재 국도 30호선은 차선폭 3.25m 길어께 0.5~0.8m이나 도로시설 개량을 차선폭 3.5m, 길어께 1.5m로

통 편익 증진과 자전거 도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국도 30호선 2차선 도로시설 개량 사업은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과 부안을 찾는 탐방객들의 교통 편익 증진 차원에서 빠른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왕술밭 공동체정원 텃밭 분양 모집

정읍시가 다가오는 봄, 자연을 가꾸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왕술밭 공동체정원(내장상동) 텃밭 분양 모집을 실시한다.

왕술밭 공동체정원 내 조성된 텃밭은 도시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텃밭은 총 61개소로 일반 시민에게 51개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10개소의 배려텃밭이 제공된다. 텃밭 분양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자는 컴퓨터 전산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된다. 당첨 결과는 2월 21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텃밭 분양 당첨자는 3월 4일부터 12



월 12일까지 약 9개월간 경작권이 주어지며 연간 사용료는 개소당 1만 840원이다. 텃밭은 1개소당 8㎡(약 24평) 크기로 시민들은 이곳에서 직접 텃밭을 꾸리고 원하는 모종을 심어 가꿀 수 있어 도시 속에서도 손쉽게 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텃밭 분양은 단순한 경작 공간

제공을 넘어 도시농업 활성화, 주민 간 소통 강화,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왕술밭 공동체정원 텃밭 분양을 통해 자연을 가꾸는 즐거움을 느끼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 최초 공랭식 수소연료전지’

부안 테라릭스, 영하 35도 운전 가능... 구조적 한계 극복 개발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특구에 입주한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테라릭스 주식회사(대표 김태영)가 영하 35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공랭식 수소연료전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기존 공랭식 연료전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며, 국방 및 드론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지속적인 출력 공급이 가능하여 드론의 장기 체공 성능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 공랭식 연료전지는 영하 환경에서 생성수의 결빙으로 촉매층 내 산소 공급이 제한되어 작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테라릭스는 무가습 조건에서도 운전 가능한 폐쇄형 공기극 구조와 독자적 열순환 기술을 도입하여 연료전지 외 별도의 열원 없이 영하 35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연료전지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였으며, 이번 2월 28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드론쇼 코리아'에서 이번 기



술이 적용된 무인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테라릭스의 이번 성과는 영하 조건이 필수인 국방 및 드론산업에 수소연료전지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한 혁신적 사례"라며 "부안군 신재생에너지특구 입주 기업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릭스는 지난 2019년 전북특별자치도 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에 설립되어 6년만에 수소연료전지 업체 선도 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다양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제62회 전북도민체전 성공개최 준비 돌입

고창군이 오는 9월 중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도민체전은 고창군 일원에서 3일간 개최되며, 육상, 축구, 수영 등 39개 종목에서 도내 14개 시·군 선수단 약 1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019년 제56회 도민체전 이후 7년 만에 고창에서 열리는 만큼, 5만 고창군민과 18만 전북도민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고창군은 올해 도민체전 T/F팀을 발

족했다. 이어 올해 초 도민체전 조직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준비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약 30여원을 들여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도민체전 성공을 위해 성화봉송, 자원봉사 운영, 주차 및 교통 관리, 경기장 조성 등 각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철환 고창군체육회 회장은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은 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열기를 고조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기초자료 확보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정읍시가 오는 7월부터 3월 4일까지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하며 지역 경제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통계조사로 1994년 이후 매년 실시돼 올해 32번째를 맞는다.

조사 대상은 조사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또는 조사일 현재 정읍시에 소재한 사업체를 수형 중인 모든 사업체(약 1만 8882개소)다.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 연월, 사업

종류, 종사자 수 등 총 9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로 대체될 수 있다. 이는 취약지역,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특수 환경에 맞춘 유연한 대응을 위한 조치다.

조사원 자료는 내용 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조직 형태별, 업종별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등을 집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